



〈그릇, 바구니와 과일-주방탁자〉-1888~1890년, 캔버스에 유채, 65*81,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 현대 미술의 시작 폴 세잔 -
박재현 작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일을 꼽는다면 단연코 사과다. 인류에게 고통을 선사한 선악과,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뉴턴의 사과 그리고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세잔의 사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잔은 사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확립되었던 미술의 규범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색상의 변화로 모든 것을 표현해 현대 미술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현대 미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세잔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릇, 바구니와 과일-주방탁자〉다. 그는 이 작품에서 윤곽선이나 그림자를 넣는 대신 색상의 변화로 양감을 표현했다. 세잔은 과일이야말로 양감(볼륨)을 넣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정물화를 통해 표현기법을 발전시켰다.

이 작품은 대상을 무작위하게 고른 것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해서 구성한 것이다. 과일 바구니 윗부분은 위에서 본 시점으로 측면은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동일한 대상을 이중 시점으로 그렸다.

테이블 오른쪽 지나치게 커다란 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크게 그렸으며 왼쪽의 구석의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왼쪽 식탁보 접힌 부분에 있는 붉은 배는 과일 바구니 안에 배와 유사한 위치에 놓아 평형을 유지한다.

세잔은 자신에 대한 천재성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그림을 위해 살았지만 그가 평생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여성이었다. 세잔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여자를 유혹하거나 여자를 사귀지도 못했다. 세잔은 여성에 대한 공포와 갈망의 혼합된 감정을 종종 캔버스에 담아냈다.

세잔이 자신의 욕망을 담은 작품이 〈나폴리의 오후〉다. 오후의 정사를 벌이는 연인을 표현한 이 작품은 현실적인 요소와 세잔의 상상적인 것이 결합되었다.

금발의 여인은 남자의 등을 애무하고 있고 머리를 팔로 껴 채 남자는 여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바라보고 있다. 침대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별거벗은 연인들 뒤로 흑인 하인이 커튼을 젖히면서 음료를 권하고 있다. 하인의 등장에도 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

작은 창문은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들에게 밖에 풍경을 감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인이 들고 있는 것은 사랑의 묘약으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인의 허리춤에 둘러져 있는 붉은 옷은 연인들의 정념을 암시하며 이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흑인 하인을 그려 넣었다. 나폴리는 연인들에게 사랑을 속삭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이 작품은 유혹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던 세잔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세잔은 이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것을 접잖은 대중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낙선되었다.



〈나폴리의 오후〉-1872~1875년, 캔버스에 유채, 37*45, 호주 내셔널 갤러리 소장

세잔은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세잔에게 은행을 물려주기 위해 법률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세잔은 화가의 꿈을 가지게 된다. 당시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던 직업인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세잔은 친구 에밀 졸라의 격려와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버지에게 겨우 승낙을 얻어 동경하던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된다.

세잔과 졸라는 중학교 동창으로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다. 어린 시절 졸라가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면 세잔은 글쓰기에 소질을 보였다. 파리 태생의 졸라는 일찍 아버지가 죽어 엑상프로방스에서 학교를 다녔다. 한 살 위인 세잔이 큰형처럼 졸라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세잔이 졸라를 도와준다. 고마움을 느낀 졸라가 세잔에게 사과하나를 선물하는데 후에 세잔이 사과를 정물화의 소재로 가장 즐겨 그리게 계기가 된다.

세잔은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계속하던 중 인상주의 화가들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가한다. 하지만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과의 모임에서도 아웃사이더였다. 촌스러운 외모와 강한사투리,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어울리지 못한다. 세잔은 파리에 적응하지 못하지만 인상주의 전시회를 참여하게 된다.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대중들에게 비웃음 샀는데 세잔의 어린 적 친구이자 인상주의 화가들을 변호했던 에밀 졸라가 전시회에 방문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옹호하는 글을 남겨 그들의 편이 되어 준다.

하지만 졸라는 1866년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한 경험으로 소설 〈작품〉을 발표한다. 소설의 주인공 클로드 랑티에의 모델은 마네와 졸라의 어린 적 친구 세잔이다. 클로드 랑티에는 계속되는 실패에 절망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예술가로 나온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소설의 주인공을 졸라의 비난으로 여겼다. 결국 소설 때문에 졸라는 세잔과 결별한다.

세잔은 인상주의 전시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는 두 번째 인상주의 전시는 참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전시회의 실패로 비용을 각자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세잔은 빚을 얻었다. 아버지가 빚을 청산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다음 전시회는 엄두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화가로서의 성공을 하고 싶어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낙선한다.

이 시기에 세잔은 파리에서 1869년 오르탕스 피케를 만난다. 제책소 직공으로 일하던 그녀는 열아홉 살이었고 세잔은 서른 살이었다.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세잔은 그녀와 곧 동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오르탕스는 세잔이 그토록 벗어나고자했던 외로움과 성적 욕망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세잔은 여자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댔고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거의 공항 수준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심이 많은 성격 탓에 오르탕스를 믿지 못한다. 또한 오르탕스는 그림과 문학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경솔했다. 그녀는 세잔에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참을성 많은 모델이었다. 세잔은 초상화 한 점을 그리는데 보통 150회 정도 얹혀 놓았기 때문에 오르탕스 외에는 그의 모델이 될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세잔의 초상화 대부분이 오르탕스를 모델로 한 작품이다.

3년 후 두 사람 사이에 아들 폴이 태어났지만 집안에 알릴 수가 없었다. 세잔은 경제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잔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오르탕스와 아들 폴을 작은 아파트에 살게 하고 액상 프로방스를 오가지만 결국 동거 사실이 들킨다. 아버지는 오르탕스의 존재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세잔을 벌주기 위해 생활비를 절반으로 삭감하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받는다.

세잔은 1886년 47살에 오르탕스와 결혼을 한다. 세잔이 결혼한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다. 열네 살 된

아들 폴을 세잔은 맹목적으로 사랑해 사생아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다. 아들 폴은 세잔의 말년에 정신적인 위안이 되어주었다.

세잔은 화가로서의 아들의 인생을 걱정해 막대한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자 고향 엑상프로방스에서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세잔의 그림은 프로방스의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밝고 풍부한 색채와 엄격한 화면의 구성의 조화를 통해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폴 세잔(1839~1906)은 인상파 화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그들과 충분한 교류를 하지도 않았고 전통적인 교수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신념에 대해 사회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

세잔은 빛과 그림자의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색채와 형태의 관계를 탐구해 독창적인 방식을 선보인다. 세잔의 독창적인 방식을 언론과 대중들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한 그의 작품을 베를린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한다. 그 일을 계기로 세잔은 파리의 화단에서 인정받는다.

세잔은 생전에 자신의 작품에만 파묻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 1년 후에 파리에서 열린 회고전은 현대 회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시가 되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13
Fax : 02)3274-2009
E-mail : lsy1296@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8월호
(통권 제 44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변성완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심영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8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